



“한 뼉의 그늘도 고마운 계절” 2일 제주시 연동 횡단보도 그늘막 아래에서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김희민기자

‘초·중학교부터 알아야 하는 진짜 영어공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8~19일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오는 18일과 19일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초·중학교부터 알아야 하는 진짜 영어공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시 지역 보호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서부지역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역량지원센터에서, 동부지역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표선면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 각각 이뤄진다. 강연자로 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인터넷 교육 정승익 강사가 맡는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들에게 외국어 학습의 기초를 올바른

게 이해시키고 효과적인 자녀 영어 교육 방법을 전달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세부일정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된다. 연수 참가자에게는 강사의 저서 제공과 영어 학습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김지혜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보호자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작년 도내 5개 읍면동은 출생아 수 10명 미만

2024년 출생아 수 3156명으로 8년 연속 최저
추자면·중앙동은 단 1명… 아라동 342명 최다
43개 읍·면·동 중 24곳은 출생아 50명 밑돌아

제주지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곳은 1명, 가장 많은 곳은 300명이 넘어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아기 울음소리도 듣기 어려워진 반면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된 곳을 중심으로 출생아 수도 많았다.

2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도내 출생아 수는 3156명(제주시 2466명, 서귀포시 690명)으로 전년 대비 2.0%(66명) 감소했다. 2017년부터 8년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3000명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83명으로 역대 최저다. 2021년 0.95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후에도 계속 하락세다.

지난해 읍·면·동 별 출생아 수 차이는 뚜렷했다. 섬속의 섬인 제

주시 추자면과 서귀포시 중앙동의 출생아 수는 단 1명이었다. 제주시 우도면(2명), 일도1동(3명), 도두동(15명), 용담1동(19명), 이호동(29명), 이도1동(30명), 구좌읍(32명), 삼도2동(36명), 한경면(38명), 용담2동(39명), 건입동(41명), 봉개동(47명) 등 27개 읍면동 중 13곳의 출생아 수가 50명이 채 안됐다. 제주시에서 출생아가 가장 많은 곳은 아라동(342명)으로, 유일하게 300명이 넘었다. 이어 노형동(256명), 이도2동(225명), 연동(205명), 외도동(185명), 애월읍(156명), 삼양동(140명), 일도2동(131명), 조천읍(129명), 화북동

(125명), 오라동(125명), 삼도1동(59명), 한림읍(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지역에선 중앙동과 정방동(5명) 출생아가 10명이 안됐다. 이어 송산동(11명), 천지동(11명), 영천동(12명), 예래동(19명), 표선면(26명), 효돈동(31명), 안덕면(32명), 성산읍(46명), 대정읍(48명) 등 11개 읍·면·동의 출생아 수가 50명을 밑돌았다. 출생아 수가 100명이 넘는 곳은 동홍동(105명)이 유일했다. 이어 대륜동(84명), 대천동(77명), 서홍동(65명), 중문동(62명), 남원읍(55명) 순으로 많았다. 문미숙기자

신제주의국문화학습관
자기주도 학습센터 선정

신제주의국문화학습관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4개 시도의 총 50곳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신제주의국문화학습관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과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는 개별 열람실·모듬 학습공간·휴게실 등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 EBS 연계 학습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대학생 연계 화상 지도를 통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질의응답 및 학습 상담도 가능하다. 공모에는 14개 시도교육청에서 7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학교 안 25곳, 학교 밖 25곳 등 총 50곳이 확정됐다. 신제주의국문화학습관은 학교 밖 센터로 분류됐다. 학교 밖 센터는 지역 거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발해 운영한다.

김채현기자

제주교육 핵심 과제는 인성·폭력 예방

도교육청, ‘2026 제주교육’ 위한 학생 의견 수렴 결과
김 교육감 “학생 목소리 반영해 내년 교육 설계할 터”

2026 제주교육 설계의 밑그림이 될 학생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도내 학생 대표들은 인성교육, 고교체제 개편, 학교폭력 예방 등을 미래 제주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2026 제주교육’ 수립을 위한 학생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간 도내 초·중·고 학생 대표 2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25 제주교육’의 역점 과제와 학생 제안 정책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분야에서는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2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아침체육활동 활성화 18.0%,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사업 지원 11.2%, 교육 3주체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지원 10.6% 등의 순이었다.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에서는 학생의 진로·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 추진(27.8%)과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확대(23.5%)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분야에서는 마약·흡연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강화(18.8%),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선도학교 지원(17.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12.5%)이 강조됐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에서는 교육균형발전 지원(19.7%),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16.7%), 제주형 늘봄학교 확대(11.6%)가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설문조사는 학생 스스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인성과 안전, 진로,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2026 제주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폭우에 고립된 한라산 탐방객 구조

제주에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한라산 탐방객들이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서귀포시 남

원읍 하례리 한라산 둘레길 5코스에서 탐방객 11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쏟아진 폭우로 계곡의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불어나면서

탐방객들의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오후 1시 28분쯤 탐방객들을 모두 구조했다. 구조된 탐방객 11명은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해 도보로 하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2025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한라산둘레길 초청행사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한라산둘레길 에코힐링 체험 <국민건강 차유프레그> 행사를 알립니다.

사업명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국민건강 차유프레그’

일시

2025년 9월 9일(화)
08:00 ~ 16:00

사업내용

가. 행사일정 : 2025년 9월 9일(화) 08:00 ~ 16:00
제주중합경기장 시계탑 집합 후 이동 (버스)
나. 장 소 : 한라산둘레길 동백길(4구간)
(무오법정사 ~ 돈내코탐방로) - 13.3km
다. 이 벤 트 :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산행 프로그램
라. 모집인원 : 40명
마. 모집방법 : 공개모집 (선착순 40명 / 참가비 무료)
바. 접수방법 : 전화접수 (064-784-4280)
9월 3일(수) 09:00 ~ 마감 시까지
사. 준 비 물 : 산행복장(등산화, 배낭, 스틱) 간식(행동식), 물 등
아. 제 공 : 버스, 보험, 도시락
자. 행사문의 : 한라산둘레길 숭늉센터 (064-784-4280)
※유의사항: 신청시 장거리 산행인 점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내 임대업장 운영자 모집 안내

1. 임대업장 기본 내용

구분	용도	현 운영	위 치	임대면적	비고
1	도·소매점	기념품점	호텔 지상 1층	68.29㎡(21평)	

2. 공통 사항

1) 상가 업장은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종료 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 수 없음
2) 시 설 물 : 영업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는 임차인이 부담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영업허가 지위 승계관련 서류 제출 포함)있음.
3) 계약조건 : 보증금 완납 (현금 예치) 후 임대료 월 납입조건
4) 관 리 비 : 임차인 부담 (전기 및 수도료는 고정금액 면적 대비 분할 청구)
5) 계약주체 : 개인 (공동명의 불허) 및 법인 모두 가능
6) 업종 변경 등 문의 사항은 사전 협의 필요
(업종 판매상품 他 업종과 중첩상품 판매 불가)

3. 기타 사항

1) 필요한 경우 운영할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복수의 업체가 임대 희망 시 당사 내규에 의하여 입찰을 진행 할 수 있음
2) 기타 임대 관련 궁금 사항은 유선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안내 가능함

4. 문 의 처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총무팀 ☎ 064-731-5611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BOOYOUNG JEJU
호텔도 리조트도

500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전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적정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 064.742.6234
문의 | 010.7599.6234

500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